

日 수출규제 장기화... 정부 단호한 대응

소재·부품·장비 핵심인재 양성 중점 추진... 동북아 역사 교육·시민강좌·전문가 연구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경제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방안과 동북아 역사교육 강화,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핵심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모든 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하고, 주요 국고사업의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산업 현장 수요와 동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이공계 분야 핵심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핵심인력이 양성돼 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체와 교육계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채널을 개통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동북아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교육 등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강좌와 역사서적 개발·보급 등 교육·홍보를 다각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사 및 갈등 현안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 전문가 네트워크 등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당일 오전 11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비공개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기행사를 원활하게 개최하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과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관계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림의 날 기념행사는 여성인권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로써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며 "관심갖고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계기교육 홍보 등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관광지 홍보를 강화하고 여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관광지 부당요금과 불법숙박, 위생불량 등 집중 지도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일 역사유적지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광복절 역사여행'과 '광복 여행코스 10선' 등을 홍보한다. 또한 한류와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상품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배제 조치하면서 한일관광교류가 더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말처럼 어려워진 경제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은 국내소비와 관광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일 관광교류 촉진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광업계 금융지원 활성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박은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장도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책을 밝히고 관계부처 협조를 요청했다.

박은후 장관은 "직접 수출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상당량 일본으로부터 화장품·의약품 원재료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수출규제가 강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민관대척반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안전 공급협의회 구성과 세부대응 매뉴얼 등 의약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기초 R&D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실효성을 떨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부품·소재·장비 분야 핵심인재 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형 자동차 등 단기인재양성과정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2023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고 국내 R&D 지원과 공학 교육혁신 등 종합적인 인재양성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장은 "소재·부품·장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고충과 향후 관련 민원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적시에 민원을 예보·분석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30분 종료됐다.

“김치 전문가 도전해보세요”

국제한식조리학교, 전문인력 종사자 과정 교육생 모집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에서는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김치 전문인력 종사자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치시장 확대와 한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라북도와 전주 지역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외식업 관련 임·직 및 조리전공자, 창업 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론 및 실습강의, 워크숍(8회)의 4주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김치와 한국 음식문화의 현 주소, 마케팅 방향 성공 사례 분석, 제조 공장 방문, 사찰음식과 사찰김치, 우리나라 맛과 미생물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김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진행되는 '김치 전문인력 종사자과정' 신청 및 접수는 학교 홈페이지(<http://www.aikchef.com>)와 (사)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http://www.jonjikinchi.com>)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제한식조리학교(학교장 민계홍)에서는 8월 23일까지 2019년 2학기 단기(단과)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http://www.aikchef.com>)와 대표 전화(063)230-166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기자

도교육청, 대입 수시 지원전략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에서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10일 오후 2시부터 전주대학교 예술관 1층 J아트홀에서 수시 지원전략 안내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고3 수험생의 대입 수시지원 준비와 고교 교사들의 내실있는 진학 상담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고3학생과 학부모, 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도교육청 정승모 대입지원실장이 전북권 대학, 교대, 거점 국립대 등에 대한 유형별 학과 탐색 방법 및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설명했다. 또 배명고 채용석 교사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입 수시 주요사항 분석 및 지원 전략을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장을 찾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입장순으로 수시자료집 4종을 제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대학별 전형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사들의 수시 진학 상담과 고3 학생들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입시 응시원서는 오는 8월 22일~9월 6일까지 접수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4일 실시된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6일~10일까지다. 대학별 접수일자 및 마감시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의 전형요강을 반드시 참고해 지원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스마트 농생명 교육생 모집

군산대학교 농생명융합기술센터가 '스마트 농생명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부문은 두 개 트랙으로 하나는 스마트팜 및 시설농업 종사자 대상이고 나머지는 학생, 농업종사자, 미취업자, 관심있는 일반인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모두 12일부터 23일까지고, 모집인원은 각 트랙별로 차수당 12명씩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스마트 농생명 기본교육이 각각 2차에 걸쳐 실시된다. 세부내용은 스마트 농생명의 이해, 작물 생리 및 영양 교육,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술을 이용한 생육환경 제어 및 모니터링, 유통 및 마케팅 전문 교육, 작물 재배, 생육 등 농생명 기본 교육, 농업기계 기본 교육 및 실습 등이다.

강사진은 과목별 전문가로 구성되고, 교육과정 80% 이상 출석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교육기간은 학생, 농업종사자, 미취업자, 일반인 대상 트랙의 경우 1차시는 9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차시는 10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다. /군산=김정훈기자

원광대 장우철·황동욱씨, 연구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새로운 합성 전략 제시해 인정받아

원광대학교는 화학과 석사과정 장우철·황동욱씨의 논문이 SCI급 저널인 Tetrahedron Letters에 게재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장우철·황동욱씨의 논문은 벤자인과 아이소사이아네이트(Benzynes, Isocyanates)를 이용해 2번의 탄소-질소 결합 형성을 포함하는 다이아릴 아민 유도체 합성 반응을 연구한 결과

이다. 벤자인과 아이소사이아네이트를 이용한 다이아릴화 반응 개발을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책임저자인 고혜민 교수 지도로 장우철씨와 황동욱씨가 공동 1저자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전이 금속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 반응 조건에서 2번의 탄소-질소 결합을 통한 다이아릴 아민 유도체를 형성하는 반응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원자 경제적인 반응 조건



장우철 황동욱
에서 진행돼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값비싼 전이 금속과 위치 선택적인 지향기를 사용하는 기존 합성법

과 달리 벤자인의 특성을 이용해 선택적인 탄소-질소 결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황동욱씨는 다양한 의약품 후보 물질과 유기 재료 물질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합성 전략을 제시해 연구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벤자인을 이용한 다양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의 합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황동욱씨는 연구 가치를 인정받아 정밀화학회사에 취업했다. /익선=장양원기자

제23회 고창 해풍고추축제

2019. 8. 23(금) ▶ 25(일) 3일간 전북 고창군 해리면 체육관 및 신복지회관 일원